




복식문화사




5강. 조선시대의 복식 2

교재: 우리 옷 이천년, 류희경 외, 미술문화, 2011

조선시대 여자복식

(Ⅱ. 여자복식) 왕실복식			
()			<p>()은 대홍색이었고 무늬가 없었으며 그위에 배자를 입는데 청색에다가 ()을 수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를 두르는데 ()의 바탕색은 짙은 청색이었고 선을 둘렀으며 적계문을 금수 하였다.</p>
()			<p>임진, 병자 양란을 고비로 왕비의 예복은 대삼과 달리 대명회전 등에 의거하여 새로 ()를 만들어 냈다. 색은 대삼과 같은 ()으로 하였고 적문도 왕의 ()수에 대응하도록 구성하였다.</p> <p>하피도 우리나라 나름대로 긴 한쪽으로 하고 등 뒤에서는 흉배 아래로 ()으로 늘이고 앞으로 넘겨 치마 끝까지 늘이되 겹치지 않도록 단추로 고정시켰다.</p>

<p>()</p>		<p>황후 적의의 바탕색은 ()이고 깃과 도련 수구에 ()선을 두르었다. 황태자빈의 적의는 () 바탕색에 ()선을 수구와 도련 깃에 돌렸는데 여기에는 ()을 적금하였다. 적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은 옥색으로하고 홍색 선을 두르고 깃둘에는 불문13개를 작성하였다. ()은 심청색으로 적문 3줄 사이에는 작은 이화문을 4줄작성하였다. ()는 청색 비단으로 하고 여기에 옥장식 10개,금장식 4개가 장식되었다. ()는 겉은 청,안은 홍으로 하고 끝은 순홍으로 늘어뜨렸다. ()는 혼색을 바탕으로 황,적,백,표,녹의 5색으로 직성하였다. ()은 청색 비단으로 되어있다. ()는 비단으로 싸고 황대에 넣어 있다.</p>
<p>()</p>		<p>()란 왕비가 직조를 장려하는 의미로 누에를 치고 누에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말한다. 이때 왕비는 ()를 입는다.</p>
<p>()</p>	 <p>(광해)</p>	<p>조선시대 초기 왕비의 상복이며 4품이상 정처의 예복으로 착용되었다. 조선초엽 노의는 ()을 사용하였다. 노의의 형태는 앞은 ()뒤는 ()이다. 수구에는 남색태수를 달고 자색 대를 부금하여 늘인다. 전면에는 ()개의 둥근 쌍봉문을 부금 하였다.</p>

<p>()</p>			<p>()은 조선초기에는 왕비의 법복 외에 노의와 장삼이 예복으로 사용되어왔다. -황후,황태자비 원삼 국말에 왕비가 왕후가 되면서 황후의 복색에 따라 황원삼이 되어 황색길에 ()과 () 색동과 ()한삼이 달린다. 황태자비는 중기 후반 왕비 원삼과 같은 홍원삼인데 안감이 ()으로 되어있고 ()선이 둘러져 있다. -자적 원삼과 수복자문 원삼 자색원삼은 후궁에서 올라온 빈궁이 입었다. 원삼을 입을 때 궁중에서는 전행 위치마를 입는데 왕후는 ()를 하고 왕비외의 왕족은 ()를 사용하였다.</p>
<p>()</p>		 <p>(해품달)</p>	<p>당의는 ()으로서 궁에서 평상시에도 흔히 입는다. 보통 연두 길에 깃은 제깃이고 겹고름과 안고름은 ()로 한다. 안감은 ()이다. ()는 의례복의 상징적인 것으로 흰감에 창호지를 받쳐서 수구에 달며 자주 갈아 달수 있다.</p>

명칭	사진	영상매체	특징
당의			
()		 <p data-bbox="797 823 958 852">해를 품은 달</p>	<p>오월 단오 전날 왕비가 ()로 갈아 입으시면 단옷날부터 궁 안의 모든 사람이 ()로 갈아입는다. ()는 ()으로 하는 것으로 ()이 매우 까다롭다.</p>
()		 <p data-bbox="846 1334 904 1361">동이</p>	<p>상궁의 ()로 시대가 올라가 있는 형이다. 궁인과의 차이를 두기 위하여 당의 색도 다소 짙고 치마도 짙게 가라앉은 남색이고 무늬도 조금 있었다.</p>

서민 예복

<p>()</p>		 	<p>왕비의 ()으로 녹색에 직금을 한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왕비의 ()이 ()로 바뀌면서 없어졌으므로 사대부가의 ()도 없어졌을 것이다.</p>
<p>()</p>		 <p>주노</p>	<p>공주나 옹주, 상류층에서 주로 () 때 사용하던 예복이다. 대홍색 비단에 ()와 ()을 의미하는 물결, 바위, 구봉, 연꽃 등의 수와 이외에 이성지합, 만복지원, 수여산, 부여해 등의 글을 수놓고 수구에는 한삼을 달았다. 치마 저고리 위에 활옷을 입고 대대를 띠고 머리에는 ()을 꽂고 뒤에 긴 ()와 양비녀 옆으로 ()를 드린다.</p>

<p>()</p>	<p>한상복(冠裳)은 조선시대 왕실의 관복을 일컫는 것으로, 왕과 왕후의 관복을 가리키는 '한'과 '상'이 합쳐진 말이다. 왕의 한상복은 주로 금색과 홍색을 사용하며, 왕후의 한상복은 주로 녹색과 노란색을 사용한다. 한상복은 매우 화려하고 정교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며, 왕실의 권위와 품위를 상징한다. 또한, 한상복은 조선시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p> <p>한상복(冠裳)은 조선시대 왕실의 관복을 일컫는 것으로, 왕과 왕후의 관복을 가리키는 '한'과 '상'이 합쳐진 말이다. 왕의 한상복은 주로 금색과 홍색을 사용하며, 왕후의 한상복은 주로 녹색과 노란색을 사용한다. 한상복은 매우 화려하고 정교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며, 왕실의 권위와 품위를 상징한다. 또한, 한상복은 조선시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다.</p>	<p>마이 프린세스</p>	<p>두록색 비단에 안감을 홍색으로 하였다. 수구에는 다홍색과 노란색 색동을 달고 ()을 달았다. 그리고 화문을 금박하였고 봉대를 뒤에 늘이고 밑에는 예복상을 입었다. 계급에 따라 ()이 다르다.</p>
<p>(,)</p>			<p>조선초기부터 중기까지 내려오는 사서인의 여자 예복이다. ()는 여자의 예복으로 검정색 거죽에 안감은 흰색으로 되어있다. 대대는 검정색의 홍색으로 선을 둘러서 앞으로 길게 늘였고 가운데는 오색으로 짠 조대가 있다. 대대를 하고 ()과 ()를 달고 장신구를 양쪽에 단다. 양옆에는 장신구로 큼직하게 매듭을 하고 생활에 필요한 (,) 등을 매달았다. 뒤에는 후수를 달고 머리는 다리를 넣어 빚어 올린 엷은 머리에 검정사로 만든 ()라는 쓰개를 엮고 비녀를 꽂는다. ()는 () 위에도 배자를 입고 머리에는 관모에 비녀를 꽂는다.</p>

()			19세기 서양에서 유행한 () 스타일이다.
()			조선시대 초기의 저고리는 품이 넉넉하고 ()과 ()가 길다. 연대가 내려갈수록 ()가 짧아지고 있으나 ()은 여전히 길다. 배래는 직선이던 것이 수구를 약간 좁힌 곡선이 되었다. 깃은 ()이던 것이 () 형식의 깃이 되었다. 고름의 너비는 좁으나 전보다 길이는 다소 길어졌다. 일반적으로 단순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일제 탄압 하에 들어가면서 왕실에만 ()과 ()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못입게 하였다. 대신 평상복이던 ()에 ()를 예복화 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그리하여 평상복에 (리)를 얹어 예복으로 입게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예복에는 ()이나 ()가 달려 있어 수구에 ()을 대는 것으로 예복을 표시하였다. 조선 말 예복을 갖추기 못할 때는 저고리에 ()를 달아서 예복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냈다.
()			의례적인 옷으로 () 치마 저고리를 말한다. 제삿날 또는 제사 올릴 때, 대소가에서 상사를 당했을 때 입는다.

()			<p>통넓은 가랑이가 있는 ()으로 뒤가 터져있고 허리끈 외에도 ()이 하나 더 달려있다.</p>
<p>서민 일상복</p>			
()			<p>()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것이다. 평상시에 입는 치마와 같은 것으로 주로 연옥색 옥양목 치마를 머리에 썼다. 치마허리로 얼굴 둘레를 두르고 손으로 속에서 잡아 쥘다.</p>
()			<p>형태가 ()와 비슷하며 초록색 무명이나 명주로 만들고 안은 자주색을 사용하였다. 수구에는 거들지를 달았고 앞은 여미어지도록 아래에는 맺은 단추를 두세 개 달고 위에는 고름을 대충이 되게 ()을 달았다.</p>

()			<p>거죽은 홍색으로 안은 초록으로 솜을 두어서 머리에서부터 쓰는 ()으로 노동하는 여자들이 사용하였다.</p>
()			<p>조선말 1900년경이 가장 ()가 짧아지는 시기였다. 겨드랑이 밑이 약 1cm로 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의 깃 궁둥이가 ()에서 동그랗게 변하였다. 고름은 다소 넓어지면서 길이도 길어졌고 장식적으로 되었다.</p>
()			<p>돌이 되면 다홍치마를 입히고 노랑저고리에 색동을 해주고 홍색 회장을 더한다.</p>
<h3>머리 장식</h3>			
()			<p>어린 아이는 머리에 다홍색 실을 넣어 바둑판같이 갈라 땀아 ()를 땀고 뒤로 묶어서 땀기를 드리는 ()를 했다. 출가 전에는 처녀의 표식으로 반드시 ()를 하였다. 조선 중기까지는 가체를 넣어 크게 ()를 하였다. 순조 중엽에 와서 궁중의 머리 모양인 ()가 정착되었다.</p>

<p>(,)</p>			<p>()은 혼인날 사용하는 것이다. ()는 쪽의 위아래로 꽂는 것이다.</p>
<p>()</p>			<p>조선 말엽이 되면서 ()으로 사용하고 한여름을 빼고는 오히려 ()으로 ()가 사용되어졌다. ()나 ()는 ()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나 ()는 ()를 갖추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p>
<p>장신구</p>			
<p>()</p>			<p>저고리나 당의 고름위에 또는 안고름에 매어 달기도 하고 큰 것은 원삼이나 활옷의 띠에 걸어서 늘인다. 소원하는 바의 상징성을 담은 것은 ()를 늘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노리개에는 ()와 ()가 있다.</p>

()			보통 굵기의 ()는 누구든지 낄 수 있었으나 굵은 것은 하나의 재산 밑천으로 장롱 바닥에 간직하였다가 급할 때 돈으로 바꾸어 쓰기도 했다. ()는 두 개로 되어 함께 끼는 ()로 기혼녀가 많이 썼다.
()			한복에는 ()가 없어서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하여 애용되었다. 주머니의 둘레가 둥근 ()과 양옆이 모가진 ()가 있다.
신			
(, ,)			같은 모양으로 안쪽에는 용 같은 푸근한 감으로 하고 거죽은 여러 색으로 화사하게 백비하여 만들었으며 바닥은 가죽으로 하였다. ()는 ()이며 신코와 뒤꿈치에 당초문을 놓은 것이 ()이고 코와 뒤꿈치에 구름무늬를 놓은 것은 ()이다.
()			가죽을 기름에 절여서 만든 것으로 바닥에 징을 둘러박고 있다.
(,)			()는 ()으로, ()은 ()으로 만든 것으로 미투리는 곱고 짚신은 거칠었다.
()			()으로 나무를 파서 굽을 댄 신이다.